

비축된 쌀 351만톤... 역대 최고 수준

김현권 의원 “정부 복지쌀·공공급식 확대 등 신곡 공급 과잉 해소 대책 마련을”

쌀 소비가 급감하고 생산량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곳곳에 남아도는 쌀 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 양곡 재고는 233만 톤(t), 민간 재고 118만t으로 재고량이 총 351만t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32만t)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1972년부터 생산량이 높은 통일벼가 농가에 보급된 이후 1975년 재고량은 71만톤으로 늘어났고 1980년에는 106만톤으로 100만 톤을 넘어섰다.

이후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1990년 202만톤까지 상승했다.

1992년 통일벼 수매가 중단됐고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1995년에 다시 65만톤으로 재고량은 하락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품질, 고단수 품종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999년 재고량은 72만톤으로 늘어났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 물량의 의무수입쌀이 도입돼 국산 쌀 재고에 수입쌀 재고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2010년 150만 톤까지 치솟았던 재고량은 2015년 135만 톤까지 늘어났다가 급기야 2016년 재고량은 정부관리 양곡만 170만톤으로 달하게 됐고 쌀 재

고량을 집계 시점인 지난 해 10월 민간 재고량도 107만톤에 이르렀다.

결국 쌀 재고는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의 공공비축미 39만톤과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시장격리곡 29만 9,000톤이 누증이 되면서 2017년 2월 현재 쌀 재고량은 351만톤이라는 사상 최대 재고량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벼농사 수익률은 50.2%로 196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다.

벼 재배면적은 1985년 이후 연평균 1.4%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최근 10년간은 연평균 2.0%씩 감소하여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1985년 123만ha에서 2016년 79만9,000ha로 벼 재배면적이 줄었다.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평년생산량 감소(최근 10년간 0.9%)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량의 누증은 쌀값폭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TRQ)의 규모는 1995년 5만1,000톤이었으나 현재 40만9,000톤으로 증가하면서 쌀 재고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쌀값폭락 추세를 저지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쌀 재고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쌀 재고가 누증이 되지 않도록 자급이라도 쌀생산조정제 도입, 복지쌀 및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해 신곡 공급 과잉 해소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깨끗한 축산농장 올타리 조성사업 추진

전북농협은 11일 고창부안축협 임직원과 ‘클린UP 축산환경개선의 날 캠페인’ 일환으로 고창군 신림면 소재 양돈농가 농장에서 축산냄새 방지와 환경 친화적 축산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올타리 조성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사업은 농가 스스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주변에 축백, 편백 나무 등으로 올타리를 만드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클린UP 축산환경개선의 날’을 더욱 발전 승화시켜 자연 친화적 축산업 이미지와 인근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깨끗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축산농가 이동환 씨는 “축산농가 스

스로 축산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축산냄새와 비위생적 축사환경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농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식목시기 나무올타리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냄새취약 시기인 여름철 냄새 근절을 위해 각 농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축산환경개선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며, 상시 냄새 측정과 분뇨처리 지원 등,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농가 스스로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해외명품 Fair’ 행사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12일부터 16일까지, 6층 이벤트 행사장에서 봄 정기세일 ‘Lotte Grand Festa’를 맞아 해외명품 Fair를 진행한다.

이번 ‘해외명품 Fair’는 수입병행업체 상품으로 해외명품 의류와 핸드백, 지갑, 벨트, 구두 등 20여개 유명 브랜드가 참여해 의류 10~40%, 핸드백/지갑은 5~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대표상품으로는 버버리 코트/핸드백(169만원/76만5,000원), 에트로 핸드백(59만15,000원), 프라다 핸드백 65만원, 발렌티노 핸드백 105만원 등이 준비돼 있으며, 행사기간 중 60/100/200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 3/5/10만원 증정하고 50만원 이상 롯데카드 구매 시 6개월 무이자 등 풍성한 사은행사도 펼쳐진다.

/안재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전북 뭍 찾기 캠페인 전개

도정의 핵심시책과 성장동력 사업을 근간으로 전개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가 11일 국회에서 ‘전북 뭍 찾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14개 시군 회장단 25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에 전라북도가 있는가? 호남에 전라북도가 있는가?’라는 프래카드를 펼쳐며 대선후보와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려 어필한 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론회’에 참가해 대선후보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 초청된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무소속 김종

인 전 의원 등(국회 의석순) 6명이 다.

대선후보들은 소상공인 정책공약 등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토론회 콘서트 형태로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두완정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일마다 전북의 뭍은 배제되거나 소외됐고, 또한 호남의 뭍 중에서도 광주 전남이 독자지거나 전북의 뭍이 소외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돌아갔다”며, “이번 19대 대선은 유력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의 정책기조마저 보이지 않아 박근혜 정부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가 11일 국회에서 ‘전북 뭍 찾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못한 소상공인육성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지금까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정의 핵심시책과 성장동력 사업을 근간으로 전북 뭍 찾기를 전개하고 있다. 특

히, 대선후보와 차기 정부에 어필한다는 전략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지회도 이와 궤를 같이 해 전북의 뭍 찾기에 나섰다. 30만 소상공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중소기업청,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 지원

전북중소기업청은 R&D를 글로벌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전문기업(ESP)과의 협력 R&D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등 40대 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전문기업(ESP)과의 협력 R&D 방식으로 기술전문기업(ESP) 5개 지정 분야를 대상으로 과제당 개발기간 최대 2년, 2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R&D신청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며 주관기관과의 협력R&D사업에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기술전문기업(ESP)의 의무적 참여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일까지 온라인시스템(www.sntech.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이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52)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농어촌공 전북, 대아수계 본격급수 대비 물길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11일 영농기를 맞이해 깨끗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아수계 본격급수 대비 물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완주군에 소재한 대아저수지를 전후와 익산을 거쳐 군산 옥구저수지까지 흐르는 대간선(57km)을 따라, 본부장을 비롯해 군산·익산·전주

완주임실지사가 합동으로 시설물을 점검했다.

전북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아, 경천, 동상저수지는 총저수량이 9,400만톤 중 현재 저수량이 6,500만톤(69%)으로 4개시·군(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수혜면적 1만7,793ha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재용 기자

JB우리캐피탈, 쉐보레 볼트 EV 출시 기념 콤보할부

JB우리캐피탈은 쉐보레의 순수 전기차 ‘볼트 EV’ 출시를 기념해 콤보할부부를 시행한다.

볼트 EV는 국내 판매 전기차 중 가

장 긴 1회 충전 주행거리(383km)를 인증 받았으며,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2,000만원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우수한 성능과 실생활에 가까운 디

자인으로 이미 지난달 17일 계약 시작 2시간 만에 초도물량 400대 판매 계약이 끝난 상태이며, 이후 실제 차량 구매 시 할부를 계획하는 고객은 쉐보레 콤보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할부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객은 36

개월 4.5%의 저금리 혜택으로 볼트를 구입할 수 있으며, 쉐보레에서 30만원 상당의 충전카드를 지급한다.

또한 콤보할부를 이용해 스페크 구입시 80만원, 말리부 상품권 개선 차종 구매 시 70만원 할인도 제공한다.

/안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